

## 한일 무역 투자 현황 (1)

1965년 교역개시 이래 대일 무역적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부품소재 분야 적자가 전체의 64% 차지하고 있다. 여기서는 대일 수출입 현황 및 대한 투자 전망, 무역구조 등에 대해 살펴본다.

### 1. 대일 수출입 동향

#### □ 대일 교역 전체 추이

- 1965년 교역개시 이래 대일 무역적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부품소재 분야 적자가 전체의 64% 차지(2008년 기준)

\* 대일 적자(억불) : (95)156 → (00)114 → (05)244 → (08)327

\* 대일 부품·소재 적자(억불) : (95)93 → (00)117 → (05)161 → (08)209

- 그러나 대일 수입의존도 및 수출비중은 점진적 감소 추세

\* 대일 수입의존도(%) : (90)26.6 → (95)24.1 → (00)19.8 → (05)18.5 → (06)16.8 → (07)15.8 → (08)14.0

\* 대일 수출비중(%) : (90)19.4 → (95)13.6 → (00)11.9 → (05)8.4 → (06)8.2 → (07)7.1 → (08)6.7

#### □ 최근 수출입의 특징(09.1~4월): 소비재 약진 및 부품소재 감소

- 일본 경기침체가 세계 최고수준으로 악화되어 對세계 감소폭(△28.5%)에 비해 대일 교역 감소폭(△31.8%)이 더 확대

\* 08.4분기 경제성장률(전기비연율, %) : (일본)△12.1, (미국)△6.2, (유로)△5.7

\* 일본 산업생산(전월비, %): (08.9월)1.0, (10월)△3.1, (11월)△8.5, (12월)△9.6, (09.1월)△10.2, (2월)△9.4

- 대일 수출감소(△33.8%) ≫ 對세계 수출감소(△23.5%)

- 부품소재 수출(대일 수출비중 44.7%) 대폭 감소(△39.4%)

- 대일 수출의 18.8% 차지하는 소비재 수출( $\Delta 4.3\%$  감소)은 농수산물(8.8%), 생활용품(5.6%) 등의 선전으로 상대적으로 감소폭 둔화
- \* 소비재 수출은 08년부터 엔고, 멜라민과동 등으로 증가추세로 전환
- 대일 수입감소( $\Delta 30.9\%$ ) > 對세계 수입감소( $\Delta 34.3\%$ )
- 부품소재 수입(대일 수입비중 58.6%)은 가격비탄력성으로 인하여 對세계 수입( $\Delta 33.0\%$ )보다 감소폭이 작은  $\Delta 28.0\%$  기록
- 소비재 수입(대일 수입비중 5.6%)은 엔고로 인해 승용차생활용품 등을 중심으로 대폭 감소( $\Delta 40.5\%$ )
- \* 09.1~4월 주요 소비재 수입(%) : (승용차) $\Delta 71.9$ , (신발) $\Delta 71.0$ , (세탁가전자렌지 등)  $\Delta 60.2$ , (음향기기) $\Delta 28.1$  (컴퓨터) $\Delta 42.0$ , (완구) $\Delta 30.0$

## 2. 일본의 對韓 투자 전망

### □ 투자 동향

- 일본의 對韓 투자는 2004년 이후 하락세(04년 22.6억불→08년 14.2억불)이며 상대적 비중도 하락(04년 17.6%→08년 11.1%)
- 2009년 1~4월 일본의 직접투자는 7.6억불로 최근 6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이나 최근의 하락세가 2009년에도 지속될 가능성 상존

(단위 : 억불)

구분	2004	2005	2006	2007	2008	2009
연간합 (1~4월)	22.6 (9.1)	18.8 (2.1)	21.1 (4.1)	9.9 (1.9)	14.2 (3.1)	- (7.6)

\* Sonix-Japan(5.5억불) 투자신고로 통계의 과대 평가 가능성 있음

## □ 투자 감소 원인

- 국내 부품수요 대기업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, 부품소재기업을 중심으로 일본기업의 對韓 투자도 감소
  - \* S-LCD(04 9억불, 06 9억불), Asahi(04 1.2억불) 투자이후 제조업에서 1억불 이상의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
- 일본은 다른 국가에 비해 제조업 그린필드型 투자비중이 높아 제조업 분야 투자유치가 일본투자 확대의 관건
  - \* 최근 5년간 일본투자가 국내 전체FDI의 15% 수준인 반면, 제조업은 20% 수준

## □ 투자 유치 목표(2009년)

- 전년대비 27% 증가한 18억불

유치액(18억불) = 타겟팅 프로젝트(12억불) + 전용공단 조성 등 투자유도(6억불)

- 일본 대기업 및 대규모 펀드의 해외기업 M&A(전략적 제휴, 합작투자 포함), 해외 지역개발사업 분야 투자는 증가할 전망
  - \* 일본기업 초청 방한 설명회 및 상담회(3.5, 25개사), 외국기업의 날(3.26, 30개사), 2차관 일본 투자가 라운드 테이블(4.27, 9개사) 개최 시 확인
- 일본 기업의 수익성 악화로 대내외 설비투자가 보류되고 있어 제조업 분야 그린필드형 투자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
  - \* 캐논(카트리지 공장 착공을 6개월 연기), 대일본인쇄(반도체 포토마스크 공장가동 연기), 토요타(미국 공장 가동 연기), 미쓰이 화학(중국 공장설립계획 철회) 등

## 3. 일본의 무역 구조

### □ 수출에 의존하는 일본경제

- 일본경제는 1990년 버블 붕괴 이후 사실상 성장이 중단, 일본경

제는 버블붕괴 이후 1992~2008년 16년간 연평균 1.1% 성장했으나 명목 GDP 규모는 500조 엔에서 정체

- 2009년 2/4분기 현재 GDP 규모(명목 기준)는 479조 엔으로 1992년 1/4분기 수준(483조 엔)에도 미달
- \* 명목 GDP의 정체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물가(GDP 디플레이터) 하락에 의한 착시 효과

○ 수출을 제외하면 일본경제는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축소

- 일본의 내수 규모(명목 기준)는 1997년 460조 엔에서 2009년 420조 엔으로 12년간 매년 0.7%씩 감소

#### □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 수출

○ 부품소재 수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

- 총수출에서 소재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12.8%에서 2008년 17.1%로 증가하였고, 2009년(1~7월 누계)에는 19.1%로 더욱 증가
- 부품 수출도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. 2009년 3월 이후 부품 수출 비중이 빠른 속도로 증가
- \* 지역별로 볼 때 총수출에서 소재가 차지하는 비율은 구미 선진국이 7~8%대 인데 반해, 동아시아 지역은 25%를 상회, 전체 소재 수출의 70% 이상을 동아시아에 수출

#### □ 수출경쟁력의 원동력: 모방하기 어려운 연구개발 DNA

○ 일본기업들은 불황 속에서도 R&D 투자를 확대, 통상적으로 연구개발 분야는 어려울 때 삭감 유혹이 많은 분야이지만, 일본기업들은 불황 속에서도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

- 경기침체의 위기를 겪으면서도 연구개발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
- \* 연구개발비의 절대 규모는 말할 것도 없고 상대적 비중에서도 일본은 여전히 한국에 우위(잠재적 기술경쟁력 우위)

#### 4. 시사점

- 대일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차세대 틈새사업 분야를 발굴해 집중적으로 육성·지원할 필요
  - 첨단 부품·소재는 시장이 작지만 독과점 함으로써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만큼 틈새사업 분야를 찾아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필요
    - \* 특히 환경·에너지 등 신성장 동력 분야에서 부품·소재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강화
    - \* 원천기술과 소재기술 개발에 집중함으로써 신성장 분야에서는 대일 부품·소재 의존에서 탈피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
- FTA를 통한 미국, EU와의 부품·소재 협력 가능성은 대일 협상에 있어 유리하게 활용 가능, 특히 EU를 대일무역역조 해소를 위한 유망 파트너로 인식
  - 일본 산업계로부터의 기술이전, 합작, 직접투자 등의 활성화도 더욱 적극적으로 유도
    - \* 대신 한국을 매력적인 부품·소재 시장으로 만들어 직접투자를 유도

#### <참고 문헌>

지식경제부 (<http://www.mke.go.kr>)

한국무역협회 (<http://www.kita.net>)